

제주4·3 역사 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

박진경 대령 과거 행적 기술 안내판 바로 앞 게시 금지광고물 결정에도 게시 정당 자진 철거 미이행 9일 공무원 동원한 행정대집행 통해 강제로 뜯어내

제주도가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4·3 역사 왜곡 현수막을 9일 강제 철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4·3 역사 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 현수막은 내일로미래당이 설

치한 것으로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현수막은 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과거 행적을 기술한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이하 안내판) 앞에 게시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

내판 내용을 보기 힘들다는 등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 현수막이 4·3 역사를 왜곡하며 안내판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광고물로 결정한 뒤 내일로미래당 측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어긋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와 선

도를 방해하는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는 금지광고물에 대해 게시자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게시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금지광고물로 지정됐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운영 수탁기관 모집

도교육청, 오는 27일까지

수가 진행된다.

기관은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 특강, 실습, 작품 제작 및 발표회 등을 제공하게 되며, 특히 전문가와 전공자들의 진로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역량과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취지에 맞는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하겠다”며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모 접수는 오는 27일까지이며, 1개 이하의 기관이 참여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차 접수 가능하다. 김채현기자

제주지역 공인중개업소 4년 전 수준으로 ‘회귀’ 지난해 말 기준 1823곳

부동산 경기와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주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제주지역 등록 공인중개사사무소는 1823곳이다. 법인 13곳, 공인중개사 1804곳, 중개인 6명이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1442곳, 서귀포시 381곳이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21년 1838개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제주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는 2022년 1947개소, 2023년 1959개소 까지 늘어난 후 2024년부터는 1901곳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법인은 2021년 17개소에서 2022년 15곳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 13곳으로 다시 2곳 감소했다.

특히 개별 공인중개사사무소는 2021년 1813곳에서 2022년 1924곳, 2023년 1936곳으로 100곳 이상 늘었고, 2024년부터는 다시 감소해 1880곳, 2025년 1804곳으로 4년 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이어 주택거래와 주택분양이 저조하면서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폭설 속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11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센 눈보라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눈·바람 몰아친 제주… 피해 잇따라

눈길 교통사고·강풍 피해·개폐기 이탈 등 속출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총 16건의 기상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28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는 눈길에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9시 57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도 대설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가 발생했다.

생애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오전 10시 6분쯤 서귀포시 색달동과 10시 56분쯤 서호동에서도 눈길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새벽 1시 2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도 대설로 인한 차량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다. 전날 밤 9시 46분쯤 제주시 조천읍, 11시 14분쯤 이호1동, 11시 38분쯤 구좌읍에서는 강풍에 가로수

가 쓰러져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5시 18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벗을 배수관이 이탈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오후 7시 26분쯤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전신주 개폐기이 이탈해 소방이 출동했다. 밤 10시 17분쯤 제주시 연동, 10시 34분쯤 도두1동에서는 공사장 펜스가 쓰러져 안전조치됐다.

한편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 중간과 동부, 남부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해제됐다.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미용대 사태, 사업 종료 따른 절차적 조치”

제주대 “Life2.0 종료 따라 계약 만료 사전 통보”

“공채 통해 선발… 특정인 염두에 둔 채용 불가능”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 고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본보 2026년 1월 6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제주대학교가 사업 종료에 따른 절차적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대학교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는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Life2.0) 사업비를 통해 운영돼 왔으며, 해당 사업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운영 세칙에 의거해 2025년 12월 계약 만료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금교수들의 임용 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2026년 3월 1일부터 비전임교원(계약교수) 6명을 배정하고, 학과별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금교수 면직과는 무관하게 학사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2026년 3월 1일부터 임용 예정인 계약교수는 공채를 통해 대학 규정에 따라 선발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미래융합대학 정상화를 요구하며 삽질식에 나섰던 교수들에 대한 보복성 채용’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누구에게나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 채용 절차”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대는 “앞으로도 미래융합대학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들은 계약 종료 통보와 강사 공모 방식 전환에 반발하며 고용 불안과 수업 지속성 문제를 제기해 왔고, 학교 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채현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주고산농협 2025년 소비자보호 우수인증사무소 전국 1위 대상



2026년 복무년 희망찬 새해 더 열심히 뛰고 보답하겠습니다.

조합장 고영찬 전무 박용국 수석이사 고호준 이사 고덕양 이사 김수선 이사 김애자 이사 강명옥 이사 박정희 이사 김성도 이사 현용대 감사 김태우 감사 고성권

제주고산농협 임직원 일동